

石油危機 이후 10년간 石油需要동향

머리말

세계적인 경기침체현상은 지난 해의 바닥 기점으로 해서 상승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石油수요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1982년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미약하다. 石油製品的 경우에는 오히려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연속 4년째 수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랜동안의 高油價로 석유소비국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石油業界는 금년과 내년중에 석유수요가 늘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물론 세계의 石油수요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의 하나는 경제활동수준 다시 말해서 경제성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石油에너지가 정비례한다는 전통적 개념은 최근 몇년사이에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여타 산업보다도 에너지 多消費 부문인 자본재 산업에서의 에너지 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되었다는데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石油 소비국들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高油價 현상을 극복키 위해 石油代替 에너지로 사용 에너지 형태를 전환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石油에 대한 단기적인 시장수요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량에 의한다기 보다는 선진국들이 석유 비축재고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방출하느냐 하는데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79-1980년 사이에 OECD 국가들의 육상비축량은 약 9,000만톤 늘어났으나, 1981-82년에는 약 6,000만톤이 줄어들자 이에 따라 石油시장이 뚜렷한 영향을 받았던 전례가 대변해 주고 있다.

최근의 셸·인터내셔널·피트롤리엄社가 예측한 石油製品 수요를 보면, 自由世界의 석유제품수요는 1982년의 하루 4,400만배럴에서 지난 해에 4,340만배럴로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에 는 정유공장 연료로 사용되는 제품은 포함 되지 않았다. 수요감소 추세는 1980년 5.5%, 1981년 4.5%, 1982년 3.5%였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 그룹에서 日本만이 약간의 수요증가를 보여 1982년 419만5,000배럴에서 지난해의 421만5,000배럴로 늘어났을뿐 다른 선진공업국들은 모두 다소간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 그룹군에서는 中南美가 유일하게 감소 현상을 보임으로써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간의 수요추세가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수요점유율이 1979년의 77%에서 1983년에는 73%로 떨어진 것을 상기하면 별로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병커오일의 수요면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2년 自由世界 선박업체 수요가 168만3,000배럴이던 것이 1983년에 와서는 155만4,000배럴로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해상수송이 줄어들때다 추진기관도 터빈식에서 효율성이 높은 디젤기관으로 바뀌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병커링 수요감소는 세계燃料油 수요가 8.7% 떨어진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다. 나프타수요는 대폭 증가했고, 灯油의 경우는 약간 증가했으나, 휘발유와 가스오일·輕油는 거의 불변상태를 보이고 있다. 제품별 수요 분포를 보면, 휘발유가 31%로 아직까지 가장 큰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 뒤를 26%의 가스오

일·輕油가 뒤따르고 있으며, 燃料油가 19.5%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 2 차 석유위기까지의 동향

세계 경제의 침체현상이 최하위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石油製品 수요가 최고 수준에 달했던 1979년 이래 지역별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검토해 보면 흥미롭다. 1979년은 原油생산량에 있어서는 1973년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OPEC의 시장지배력은 가장 강대했던 해였다. 1979년 이후 石油製品 수요도 계속 감소하여 79년 하루 5,030만배럴에서 83년 4,340만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진국의 그것은 하루 3,860만배럴에서 3,150만배럴로 18%나 감소한 현상을 보인데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油價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8%나 증가, 79년의 하루 950만배럴에서 83년에는 1,030만배럴로 신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981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들은 대체적인 회복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中南美는 82년과 83년에 유일하게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박업계의 병커링 수요도 27%가 줄어 하루 220만배럴

에서 160만배럴로 줄어들었다.

〈表-3〉의 제품별 수요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燃料油 수요는 1979년 이래 4년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동기간에 3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의 선박업계의 불황과는 관계없이 연료유는 다른 연료, 이를테면 가스나 石炭과 같은 에너지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점은 최근에 크래킹시설을 완비한 정유공장들이 늘어나 feedstock 요구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1979년에 대폭 신장된 나프타수요는 石油化学産業의 불황으로 침체상태에 놓여있으나, 휘발유 수요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BP에서 나온 중장기적인 수요분석은, 정유공장의 자체 연료투입, 손실량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셸이 예측한 것과는 다르지만, OPEC가 油價를 대폭으로 인상경쟁하던 석유위기 이전의 시기와 비교검토가 편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1960년대에서 오늘 날에 이르는 국제석유시장의 개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제 1 차 석유위기가 발발했던 1973년까지 석유수요는 1965년의 하루 2,650만배럴에서 73년에는 4,7

〈表-1〉 石油製品의 지역별 수요현황(1982-1983)*

(單位: 천B/D)

국가	제품 연도	휘 발 유			나 프 타			燈 油			경 油			연 료 유			전 계 품			증유율 (%)
		1982	1983	%	1982	1983	%	1982	1983	%	1982	1983	%	1982	1983	%	1982	1983	%	
선진국																				
美 國		6,943	6,991	0.7	200	179	-10.7	932	964	3.4	2,871	2,896	0.9	1,270	1,049	-17.4	14,428	14,253	-1.2	32.9
캐 나 다		625	605	-3.3	49	46	-7.2	67	59	-11.3	388	364	-6.2	153	111	-27.4	1,411	1,318	-6.6	3.0
西 유 럽		2,552	2,562	0.6	901	932	3.4	491	487	-0.8	3,895	3,871	-0.6	2,507	2,081	-17.0	11,423	11,052	-3.2	25.5
대 양 주		318	314	-1.0	10	12	15.5	72	70	-3.1	178	171	-4.2	68	63	-8.2	693	680	-1.9	1.6
日 本		627	627	0.1	376	395	4.9	456	481	5.6	712	732	2.8	1,356	1,315	-3.0	4,195	4,215	0.5	9.7
小 計		11,064	11,099	0.3	1,536	1,562	1.7	2,017	2,061	2.2	8,044	8,034	-0.1	5,354	4,618	-13.7	32,150	31,519	-2.0	72.7
개발도상국																				
中 南 美**		1,226	1,173	-4.3	180	209	16.1	270	255	-5.5	988	947	-4.1	937	926	-1.2	4,100	4,016	-2.0	9.3
아프리카·中東		697	712	2.1	30	2.9	-3.9	454	457	0.7	1,037	1,071	3.3	701	726	3.5	3,181	3,273	2.9	7.5
인도아대륙		72	75	4.8	77	67	-13.7	178	187	4.7	344	362	5.1	161	173	7.1	901	930	3.3	2.1
기 타·아시아		262	261	-0.4	65	73	12.9	281	275	-2.1	530	562	6.1	761	771	1.2	2,011	2,077	3.0	4.8
小 計		2,257	2,221	-1.6	352	378	7.3	1,184	1,175	-0.8	2,899	2,942	1.5	2,561	2,595	1.3	10,193	10,292	1.0	23.7
육 상 합 계		13,321	13,321	0.0	1,889	1,940	2.7	3,201	3,235	1.1	10,943	10,976	0.3	7,914	7,213	-8.9	42,343	41,810	-1.3	96.4
병 커 략 계											323	296	-8.1	1,360	1,258	-7.6	1,683	1,554	-7.7	3.6
세 계 총 계		13,321	13,321	0.1	1,889	1,940	2.7	3,201	3,253	1.1	11,266	11,272	0.1	9,275	8,471	-8.7	44,026	43,365	-1.5	100.0
절 유 율		30.3	30.3		4.3	4.5		7.3	7.5		25.6	26.0		21.1	19.5		100.0	100.0		

*공산권 제외, 정유공장자체 연료 제외 **쿠에르트리코, 멕시코 포함.

〈資料〉 Shell International Petroleum Co., Ltd.

〈表 - 2〉 自由世界の 지역별 石油製品 수요 (1973 - 1983)

(單位 : 백만B/D)

연 도 국가, 지역	1973	1975	1977	1979	1981	1982	1983	점유율 (%)	
								1973	1983
美 國	16.4	15.3	17.2	17.1	15.1	14.4	14.3	35.4	32.9
캐 나 다	1.6	1.6	1.6	1.7	1.6	1.4	1.3	3.5	3.0
西 유 럽	13.9	12.4	13.1	13.9	12.0	11.4	11.1	30.0	25.5
오 스트렐 리 아	0.7	0.7	0.7	0.7	0.7	0.7	0.7	1.5	1.6
日 本	4.9	4.5	5.0	5.1	4.4	4.2	4.2	10.6	9.7
小 計	37.5	34.5	37.6	38.6	33.8	32.1	31.5	81.0	72.7
中 南 美	2.9	3.2	3.6	4.1	4.2	4.1	4.0	6.3	9.3
아프리카·中 東	1.5	1.8	2.3	2.7	3.0	3.2	3.3	3.2	7.5
인 도 아 대 륙	0.6	0.6	0.7	0.8	0.9	0.9	0.9	1.3	2.1
기 타 아 시 아	1.2	1.3	1.7	1.9	2.0	2.0	2.1	2.6	4.8
합 計	6.2	6.9	8.3	9.5	10.1	10.2	10.3	13.4	23.7
내 륙 합 계	43.7	41.4	45.9	48.1	43.9	42.3	41.8	94.4	96.4
병 커 링	2.6	2.2	2.3	2.2	2.0	1.7	1.6	5.6	3.6
총 계	46.3	43.6	48.2	50.3	45.9	44.0	43.4	100.0	100.0

〈表 - 3〉 自由世界の 석유제품별 수요 (1973 - 1983)

(單位 : 백만B/D)

연 도 제 품	1973	1975	1977	1979	1981	1982	1983	점유율 (%)	
								1973	1983
휘 발 유	12.2	12.1	13.2	13.7	13.3	13.3	13.3	26.3	30.7
나 프 타	2.3	2.0	2.3	2.6	2.0	1.9	1.9	5.0	4.5
燈 油	2.9	2.8	3.1	3.4	3.2	3.2	3.2	6.3	7.5
가스오일 / 輕 油	10.2	9.8	11.2	12.4	11.5	10.9	11.0	22.0	26.0
연 료 유	11.3	10.2	10.9	10.8	8.8	7.9	7.2	24.4	19.5
기 타	4.8	4.5	5.2	5.2	5.1	5.1	5.2	10.4	11.8
내 륙 합 계	43.7	41.4	45.9	48.1	43.9	42.3	41.8	94.4	96.4
병 커 링	2.6	2.2	2.3	2.2	2.0	1.7	1.6	5.6	3.6
총 계	46.3	43.6	48.2	50.3	45.9	44.0	43.4	100.0	100.0

60만배럴로 80%나 대폭 증가되었으나, 2차 석유 위기까지는 5,120만 배럴로 겨우 8%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후 수요는 계속 감소, 1983년 현재 4,470만배럴 미만까지 축소되어 10년전인 수요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5년부터 주요 소비국들에 있어서 석유수요의 변동을 보면, 美国은 1965년의 하루 1,130만배럴에서 50%가 증가하여 1973년에는 1,690만배럴 수준에 도달했고, 제 2차 석유위기가 발발했던 1979

년에는 1,790만배럴로 늘어난 바 있으나 현재는 그 수준보다 18% 밀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西유럽의 경우는 1973년까지 하루 1,520만배럴로 거의 2배가 신장돼 1979년까지 거의 불변상태를 기록했으나, 1983년 현재는 19%가 감소된 1,220만배럴까지 떨어졌고, 日本은 1973년 이전에 212% 증가하여 1965년 하루 175만배럴에서 73년에는 546만배럴로 신장됐으나, 현재는 1973년과 1979년보다 거의 20%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동기간동안에 석유수요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美国은 43%에서 33%로, 西 유럽은 30%에서 27%로 줄어든 반면, 日本의 경우는 7%에서 10%로 신장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3개지역 합계의 점유율은 20년전 80%에서 현재는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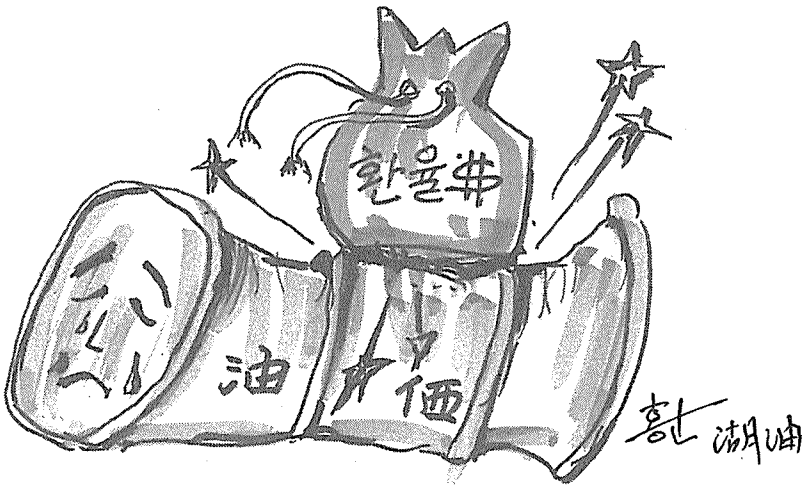
금년의 석유수요는 달러貨의 강세로 지난해 OPEC의 油價인하로 인한 소비국에서의 이점이 거의 상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IEA가 예측한 세계전체 석유 수요량은 하루 4,549만 배럴인데 이것은 지난 해의 4,440만 배럴보다 2.25%가 늘어난 것이다. 세계 주요 6개국의 금년 1·4분기 石油수요(빙커링제외)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3.4%가 증가된 하루 2,760만배럴로 나타났는데, 국가별로 증가율을 보면 美国이 4.9%, 日本이 3.1%, 英国이 0.9%, 이탈리아가 0.7%, 프랑스가 0.5%인데, 西独의 그것은 불변

상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예측을 보면 美国과 日本의 경제회복 속도가 유럽제국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美国의 상무성은 경제성장률을 1·4분기 9.7%, 2·4분기 5.7%로 발표했음). OECD 24개 국가들에 있어서 앞으로 18개월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2.5-3%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것 같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운동을 아무리 계속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高油價로 받고 있는 어려움은 쉽사리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완만한 석유수요의 증가율은 중질원유를 회피하는등 수요패턴에서 또다른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최근에 완비한 정유시설 현대화에 투입한 많은 재원회수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原油의 성상이 경질화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의문점은 결국 해소될 것이다. * <이코노미스트>

□ 漫評 □

油價 압박



하늘 높은줄 모르고 환율만 오르니.....